

#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전 세계에 알린다”

부산시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올해 주제 ‘무탄소 에너지 시대’ 11개 콘퍼런스·537개 기업전시

부산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민간 13개 기관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 2회째를 맞이하며, 기후·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행사다.

올해 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 가는 무탄소에너지(CFE) 시대’를 주제로, 기후·에너지 분야 11개 콘퍼런스, 5개 전시관 537개 기업 전시, 55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콘퍼런스는 한-국제에너지기구공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행사 포스터.

동포럼과 에너지 인공지능(AI) 포럼,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해상도시 콘퍼런스 등이 열린다.

전시관은 무탄소에너지와 미래모빌리티, 환경, 해양, 기상, 산림 등을 주제로 구성된다.

부대행사로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회원국 대상 무탄소 에너지 워크숍과 원자력·청정 수소 포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30개 주한 대사관 인사와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의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국제에너지기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제에너지기구무탄소에너지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계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이행·확산할 방안을 모색한다.

4일 오전 10시 30분 벡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정부 차관, 파티비를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해외 정부 인사, 국제기구, 기업 대표 등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기조연설은 파티비를 사무총장과 제임스 바커스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수가 말을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 한국이 유엔총회에서 처음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올해 부산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광주시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한자리에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광주를 이롭게 내일을 밝히게’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광주기업 78개, 전국 기업 15개, 정책홍보관 22개, 추석 선물전, 상담관 등 121개 부스를 운영한다.

광주기업은 가방, 수공예품, 피아·베이커리, 홍보물품, 화장지, 인쇄출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전남교육청

#### 2022 개정교육과정 안착 지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5학년도 초등 3~4학년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교과별 원격연수 운영 지원에 나섰다.

이번 연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교과별 주요 변경 사항을 콘텐츠로 엮어내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의 효율성은 높이고, 대면형 연수로 인한 수업 결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원격연수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초·중·고교교육연구회 추천을 받아, 교과별 전문 교원 26명으로 구성된 원격연수 강사진을 구성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해 시행한다.

부산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부산=이도식 기자

### 사천시

#### 케이블카-삼천포항 도로 잇는다

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삼천포항이 막힘없이 하나의 도로로 연결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사천바다케이블카 대방정류장과 삼천포항을 잇는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개통했다.

시는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2017년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8년에 완공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 포항시, 연말 동해선 구간열차 개통 교통 거점 자리매김 채비 본격화

오는 12월 예정... 이달 시운전 2026년부터 KTX-이음 투입 연계 교통망 정비·관광상품 모색

경북 포항시가 오는 12월 동해선(포항~동해 간) 구간 열차 개통을 앞두고 연계교통망을 정비하는 등 동해안권 교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채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동해안권 지역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동해선(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으로 9월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포항-삼척-동해 간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포항-삼척 구간(166.3km)과 기존선인 삼척-동해 간 6.5km까지 모두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동해선이 개통되면 최고시속 150km의 KTX-마음(급행)과 누리로(완행) 열차가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이후 1년간 탑승 실적 및 예측 수율을 분석해 오는 2026년 초부터는 최고시속 260km의 KTX-이음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동해선 개통과 함께 포항역과 월포역의 연계교통망을 정비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동해선 열차 운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동해선 개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유역사인 포항역과 월포역 구간에 대해 간선·지선·마을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현재 운행 중에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민의 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동해선에 KTX 열차가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항(경북)=나영주 기자 ray6061@



조규일 진주시장(오른쪽)이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대상지에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진주시

## 진주시,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선정

### 4년간 마중물 사업비 83억 확보

진주시는 상봉지구가 2024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봉지구는 전국 최종 10개 선정지구에 포함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원, 도비 6억원 등 마중물 사업비 83억원을 확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인 상봉지구는 서봉지공원 일원 약 7만 4000㎡이다. 진주시는 봉황 설화가 얽힌 역사 자원을 활용

한 ‘봉황이 나르샤, 태평성대 상봉 이룬다!’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노후주택 및 골목길 정비, 빈집 정비, 문화 및 생활서비스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좁은 골목길 경관 개선과 노후주택 집수리 72호 지원 ▲빈집 9호 철거 및 주차마당, 안전방재마당, 공유마당 등 조성 ▲주민들의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비봉산 산책길과 황새등공원을 연결하는 봉황 힐링로드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목포시, 스마트 해양도시 인프라 사업 소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목포시는 전기자율주행 인프라 및 탄소중립 신산업 기반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를 주제로,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 E)’에 참가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 E)’는 전세계 70여국, 300개 이상의 지자체 및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아·태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로, 도시건설&인프라, 스마트 교통, 스마트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

목포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

관한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기후 위기 등의 변화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특화솔루션 선도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 목포시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탄소저감 교통서비스 ▲스마트 그린도시 서비스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 분야의 전기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 업사이클링 기획센터 및 체험전시관 구축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글로벌 스마트 해양도시 목포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남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환급행사

롯데ON, 우체국쇼핑 등서 시행

경상남도는 추석을 맞아 경남 수산물 릴레이 온오프라인 할인·환급행사로 풍성하고 알뜰한 한가위를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소비 경향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릴레이 할인 기획전을 열고 있다.

지난 12일 ‘롯데ON’에 경남 수산물 관측 상설관 ‘경남ON 수산물바다’를 개설해 연말까지 20% 할인쿠폰을 발행해 경남 수산물 온라인몰 릴레이 기획전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18일까지 ‘우체국쇼핑’ 지역브랜드관에서 추석맞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열어 도내 수산물 판매업체 100곳의 500여 개 제품을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30% 할인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발행한다.

‘e경남몰’에서는 추석을 맞아 ‘수요일 수산물 할인 행사’를 모든 요일로 확대했고, 할인율도 20%에서 30%로, 최대 1만원에서 최대 2만원 할인으로 대폭 인상했다.

한편, 온라인 할인 기획전은 쇼핑몰 할인쿠폰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